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도봉산 역사탐방 탐방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도봉산의 문화 - 서원문화</p>	<p>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문화탐방의 시간으로 각석군과 서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서원하면 뭐가 생각나지요? 그럼 서원은 주로 어디에 있나요? 서원은 대개 이런 계곡 옆이나 산자락에 지어놓고 좋은 경치를 즐기면서 공부하는 사설학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탐방할 도봉서원도 경치가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겠네요? 그럼 여기에 있는 ‘도봉동문’앞에서 시작하여, 계곡을 따라 옛 선비들이 오르던 경치 좋은 길을 한번 걸어도 보고, 또 옛 선비들이 계곡에 있는 바위에 남긴 바위글씨에 대해서 감상도 하면서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서원인 도봉서원으로 오르겠습니다.</p>
<p>도봉동문 (道峯洞門)</p>	<p>옛날에는 산에 올 때 지금처럼 산을 정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등산이란 말을 쓰지 않고, 산에 조용히 들어왔다 간다하여 입산이란 표현을 하였습니다. 감히 오르지 못하는 저 바위만 하여도 굉장한 기가 서려있다 하여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런 높은 바위, 깊은 계곡 등이 있어 산세가 험하고 다양하며, 그 풍광이 매우 수려하였기에 많은 시인묵객들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p> <p>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한번 볼까요? 행서체로 쓰여진 ‘도봉동문(道峯洞門)’이란 바위글씨는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선생의 글씨입니다. 혹시 송시열 선생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송시열은 조선후기 때 사람으로 그 당시의 정치나 학문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유학자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송시열 선생의 이름이 3000번이나 나온다고 하니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씨는 여기가 바로 도봉산의 입구임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오늘 하는 탐방의 종착지에 있는 ‘도봉서원’이 여기에 있음을 알려주는 바위글씨입니다.</p> <p>이제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어떤 글씨가 쓰여 있는지 바위를 잘 관찰해보세요.</p>

<p>용주담 (春珠潭)과 필동암 (必東岩)</p>	<p>이곳에 와서 경치를 보니 어떤가요?(대답유도) 시 한수가 절로 나올 것처럼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곳에는 2점의 바위글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 2점 다 조선시대에 쓰인 것이긴 한데 정확히 언제 쓰인 것인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습니다.</p> <p>먼저 이쪽의 바위글씨를 한번 볼까요? 옛날 우리글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자, 읽어보면 ‘짚을 용(春)’ ‘구슬 주(珠)’ ‘깊을 담(潭)’ 용주담 ‘(春珠潭)’입니다. 쓰여진 한자로 뜻을 유추하면, 이 깊은 계곡 속으로 큰 돌덩이가 들어왔습니다. ‘짚을 용’자를 썼으니까 흐르는 물의 힘에 의해 돌덩이가 이리 저리 쏠리다가 오랜 시간이 흐르면 둥그런 구슬이 되는 것처럼, 모름지기 선비도 자기 마음을 많은 수행으로 잘 닦아 훌륭한 선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p> <p>그리고 저기에는 ‘필동암(必東岩)’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중국 대륙에 있는 황하강은 만 번을 꺾어 흐르지만 반드시 동쪽으로 흐른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곡절은 있더라도 끝에 가서는 본뜻대로 나아간다’라는 뜻과 ‘충신의 절개는 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저 글귀도 ‘만절필동’이란 글에서 필동암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p> <p>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p>
<p>제일동천 (第一洞天)과 초수(樵叟)의 시(詩)</p>	<p>이 바위에는 전체적으로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p> <p>‘동천(洞天)’은 산천으로 둘러싸인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인데 그런 곳에는 옛날에 대부분 신선들이 살았다고 하죠. 동천 중에서도 제일이라고 했으니 아마 이곳이 도봉산의 경치 중에서도 제일가는 절경이 있었던 곳이었나 봅니다. 그 옆에는 ‘동중즉선경(洞中卽仙境) 동구시도원(洞口是桃源)’ 즉 이곳이 입구에는 복사꽃이 만발하고, 신선들이 사는 경치가 좋은 ‘무릉도원’이란 곳입니다. 그 옆을 돌아보면 넘 어려운 한자가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흘겨 쓴 초서체라 하고, 촌은 유희경이라는 사람이 쓴 한시입니다. 유희경은 조선중기의 시인으로 13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년 동안 하루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묘소를 돌보고, 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이름 난 효자였습니다. 또 한시를 잘 지어 당대의 사대부들과 교류했는데 도봉산에 이렇게 흔적이 좀 남아있습니다.</p> <p>이 시는 아까 얘기한 무릉도원 같은 풍경을 조물주가 감추어둔 비경에 비유하여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한 시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계곡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해마다 토사가 밀려 내려와 계곡바닥을 자꾸만 메워 나가다 보니 깊은 계곡이었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산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먼 미래세대의 학생들에게는 “여기가 원래는 계곡이었어요?”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세대에 더 좋은 자연을 보여줄 수 있을지 생각을 하면서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p>

<p>연단굴 (鍊丹窟)</p>	<p>계곡 건너편 저 쪽에는 ‘연단굴(鍊丹窟)’이라고 쓰여 있는 바위글씨가 있습니다. 아까 본 바위글씨에 의하면 여기를 신선이 사는 무릉도원에 비유했고, 또 신선은 도교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단이란 말은 도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법술(法術)의 하나로 장생불사를 영원하는 선도의 수련법입니다.</p> <p>‘연단굴’은 ‘연단이라는 수련을 하던 굴’이라 해석되어 집니다. 그럼 정말 동굴이 있을까요? 글씨가 쓰여 있는 옆쪽을 보시면 아치형으로 잘 다듬어진 입구가 있고 그 안에 약간 인공적인 굴이 있습니다.</p> <p>서로 경쟁하는 일상에 쫓기며 살아가는 요즘과 달리, 비록 계곡에 위치한 조그만 굴이지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바위에 새기며 유유자적 하며 지냈을 옛 선인들이 부럽지 않나요? 도봉산을 오르다보면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신기한 바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 선인들처럼 바위에 이름을 새기지는 못하지만 이름을 지어주는 건 어떨까요?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바위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면서 조금 더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p>
<p>만석대 (萬石臺)</p>	<p>만석대(萬石臺)라는 글씨를 살펴보겠습니다.</p> <p>만석대란 효도를 다해 부모를 섬기고 충성을 다해 임금을 섬기며 검소한 생활로 공무원의 사표가 된 만석군을 본받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p> <p>만석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열전에 만석군 이야기가 나옵니다.</p> <p>만석군의 이름은 석분인데, 석분은 배운 것이 없어도 모든 일에 예의가 바르고 성실하게 일을 처리했고, 낮은 벼슬에서부터 높은 관직에 올라서도 더욱 부지런히 일을 하며 공손하고 근신함에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석건, 석갑, 석을, 석경 4형제 또한 효성이 지극하고 신중하여 나중엔 모두 2천석의 녹봉을 받는 관직에 이르자 석분을 만석군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모든 행동이 자손 그리고 하인에 이르기까지 모범이 되었으며 효도와 근신으로 만석군의 일가는 널리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권세를 얻고서도 겸손하고 예의를 지키며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한 만석군은 오늘날 공직자의 사표가 되는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p> <p>천석군, 만석군 이라고 호칭할 때 끝에 붙는 군이라는 표현에서 군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큰 업적이나 공을 세우면 왕이 그 보상으로 상당한 토지를 주어 제후로 삼았고 이를 봉군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군은 봉토가 있는 제후를 가리키는 품격높은 호칭인 것입니다.</p> <p>부자를 부를 때 군 자를 집어넣은 호칭이 붙은 데는 사회적인 대접과 존경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졸부처럼 험오와 질시의 대상이 아닌 벼품과 나눔의 배려를 가진 대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품격높은 호칭이었습니다.</p> <p>그럼 여기서 만석대라는 글귀는 만석군과 같이 공인으로서 도를 다해 모범적인 공직자가 되라는 뜻이겠지요.</p>

<p>송시열의 제월광풍갱별 전 요장현송답잔 원 (霽月光風更 別傳 聊將絃誦答 潺援)</p>	<p>여러분은 어떤 유명인을 좋아하세요? 연예인, 정치가, 학자, 아무래도 연예인 쪽 같지만, 만약에 김연아나 김주하 아나운서가 여러분 학교에 오면 미래의 꿈나무인 여러분을 위하여 강연을 한번 할 것입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p> <p>송시열 선생이 현종9년(1668년)에 62세의 나이로 도봉서원에 있는 조광조 선생의 사당에 참배하러 오자 지역의 선비들과 유지들, 또 재학생들의 요청으로 이와 같은 글귀도 남겼습니다.</p> <p>‘제월광풍갱별전(霽月光風更別傳) 요장현송답잔원(聊將絃誦答潺援) 화양노부서(華陽老夫書)’ 풀이하면 ‘비가 갠 뒤의 바람과 달빛같이 깨끗한 풍광이 한결 특이한 정취를 전해주네. 애오라지 거문고 치고 노래하여 졸졸 흐르는 물소리에 화답하네’입니다.</p> <p>그런데 이것은 본래 주자의 시 두 편입니다. 주자가 백록동서원강회에서 학생들에게 오로지 유학에만 전념하고, 절대로 출세를 위한 과거공부는 하지 말라고 권고한 시였습니다. 화양노부 즉 송시열 선생이 이 두 편의 시에서 한 구절씩을 뽑아다가 여기에 새긴 뜻에는 도봉서원의 학풍도 백록동서원의 학풍을 본받아 사적인 이익과 공로보다 도학을 이루는 진리의 전당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p>
<p>염락정파 수사진원 (濂洛正派 洙泗眞源)</p>	<p>이것은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의 바위글씨입니다.</p> <p>1500년대 퇴계 이황선생과 남명 조식선생이 나란히 한해 차이로 태어나셨는데, 그분들은 같은 성리학자지만 서로 학문적 성향이 많이 달랐다면, 여기 이 두분은 1600년대에 한해 차이로 태어나, 이이의 충실한 후계자로서 이이-김장생-김집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주류를 형성했던 정통 성리학자들입니다. 또 이들은 같은 집안이면서 김장생 문하에서 같이 수학하였기에 각별한 교분을 맺어나가 훗날 ‘양송(兩宋)’으로 불리기도 하였지요.</p> <p>읽어보면 ‘염락정파 수사진원(濂洛正派 洙泗眞源)’입니다. 염락(濂洛)은 염계와 낙양으로 송나라의 신유학을 일으킨 주돈이와 정자 형제가 강학하던 곳을 말하고 수사는 수수(洙水)와 사수(泗水)라는 물이름으로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친 곳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송준길이 정암의 도학정치를 흠모한 표현으로, 중국의 염락과 수사가 유교의 진원지라면 조선에서는 이곳 도봉서원이 유교의 진원지라고 말하는 듯 하네요.</p>

<p>광풍제월 (光風霽月)</p>	<p>‘광풍제월(光風霽月)’은 경종때에 한성판윤을 지낸 도암(陶菴) 이재(李緯, 1680~1746)가 쓴 글입니다. 이재는 호를 도암 이외에 한천(寒泉)이라고도 했기 때문에 바위글씨에는 천옹(泉翁)이라 새겨져 있지요.</p> <p>광풍제월(光風霽月)은 제월광풍(霽月光風)과 마찬가지로, 그 뜻은 비가 갠 뒤의 바람과 달처럼 마음결이 명쾌하고 집착이 없으며 시원하고 깨끗한 인품을 형용한 말인데요, 바로 <송서(宋書)>의 <주돈이전편(周敦頤傳篇)>에 북송의 시인 황정견(黃庭堅)이 주돈이(周敦頤)를 존경하여 쓴 글에서 나온 말로, 주돈이의 인품이 심히 고명하며 마음결이 시원하고 깨끗함이 마치 맑은 날의 바람과 비가 갠 날의 달과 같다고 그의 인품을 평한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p> <p>(주돈이는 옛사람의 품모가 있으며 정사를 베풀음에도 도리를 다 밝힌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는 북송의 유학자로 宋學의 開祖로 불리며 태극을 우주의 본체라하고 <태극도설(太極圖說)>과 <통서(通書)>를 저술하여, 종래의 인생관에 우주관을 통합하고 거기에 일관된 원리를 수집하였으며, 성리학으로 발달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p> <p>한편으로 또 이 주위에 바로 도봉서원의 부속건물인 ‘광풍당’과 ‘제월루’가 있어서 그 앞자를 따서 광풍제월이라 했다고도 합니다.</p>
<p>김수증의 고산양지 (高山仰止)</p>	<p>서원 맞은편 계곡 건너에 반쯤 물에 잠겨 밑에 있는 글씨는 잘 안 보이지만 ‘고산양지(高山仰止)’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뜻은 ‘높은 산처럼 우러러 사모한다’는 뜻으로 아마도 김수증이란 분이 도봉서원에 모셔진 정암 조광조 선생의 학덕을 우러러 사모한다는 뜻으로 새겨진 것 같습니다.</p> <p>김수증은 조선후기의 문인으로 특히 글씨를 잘 써서 당대의 명필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수증이 이곳에 글귀를 남긴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 송시열 선생과 같은 정치계열 사람이라 이곳 도봉서원을 중심으로 모이면서 이곳에 와서 글을 남기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p>

도봉서원
(道峯書院)

여기가 바로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서원인 도봉서원입니다. 어, 그런데 모두들 실망하는 얼굴, 여러분이 잘 보셨네요. 그 옛날 영화는 어디 가고 정암 조광조 선생과 우암 송시열 선생의 위패만 모시고 있는 집 한 채만 이렇게 달랑 남아있으니 왠지 아쉽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저기에 있는 사진처럼 앞에는 계곡이 흐르고, 풍광이 좋은 이곳에 저런 규모의 아주 큰 서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모습처럼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야겠지요. 먼저 서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원은 지금으로 치면 학교입니다. 지금도 나라에서 세웠느냐, 개인이 세웠느냐에 따라 국.공립학교나, 사립학교로 나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는 어디에 속하나요? 맞았어요. 서울사대부중은 국립중학교에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옛날에 있었던 성균관, 4부학당, 향교 등은 나라에서 세운 관학이고, 개인이 세운 서원은 사학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은 건물구조가 아주 비슷해서, 공부하는 공간과 제사지내는 공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다만 성균관이나 향교 같은 관학에서는 대성전을 두어 공자와 그의 제자 그리고 우리나라 18성현들을 모시고 제사지낸다면, 서원에서는 사묘를 두어 받들고 자하는 분의 위패를 모셨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도봉서원은 선조6년(1573년)에 정암 조광조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창건된 서원입니다. 즉, 조광조 선생의 위패를 모셔놓고 그의 덕과 공로를 기리며 제사지내고, 또 조광조 선생과 같은 선비가 되기를 바라는 뜻을 가슴에 품고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암 송시열 선생이 돌아가시자 여기에 추가로 위패를 모셔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조광조 선생과 송시열 선생 두 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도봉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소수서원보다 약 30년 뒤에 세워졌으며, 다른 서원들에 비해 굉장히 일찍 한양근방에 세워진 서원입니다. 지금은 서울의 영역이 넓어져서 여기가 서울이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이곳은 한양 근처인 양주에 속했습니다. 또 사액을 두 번이나 받은 서원이었기에 그 위세가 아주 대단했던 서원이었습니다. ‘사액’이란 임금이 이름을 지어서 새긴 편액을 내리던 일을 말하는데, 편액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을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라고 토지와 노비를 주고, 공부 많이 시키라고 책도 내려주면서 세금까지 면제해주니, 사액서원이 된다는 것은 아주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한 300년쯤 지나 서원이 너무 많다보니 군대는 안가고 서원의 노비가 된다는지, 서원이 너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서원의 세도가 하늘을 찌를 듯해 주변의 백성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하는 병폐(화양목패)가 따르므로 흥선대원군 때에 가서 47개의 서원만 남기고 전부 없애라는 서원철폐령이 내려집니다. 이 때 도봉서원도 할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 초에 다시 세웠는데 한국전쟁 통해 또 다시 없어지고, 현재는 복원사업을 진행중입니다.

<p>복호동천</p>	<p>금강암 앞에 복호동천(伏虎洞天)이란 글씨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띤 경치 좋은 곳’으로 해석되는데요. 사냥을 위해 엿드려 때를 기다리는 호랑이에 비유한 것으로, 통상적인 의미로 학문을 연마하며 때를 기다리는 선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p> <p>복호동천은 정암선생이 왕도정치를 펼치려다 반대파에 의해 그 뜻이 꺾여 졌지만 그의 후학들이 힘을 기르며 그 뜻을 펼 날이 올 것임을 바라며 글귀를 남기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p>
<p>문사동 (問師洞)</p>	<p>계곡을 따라 20분정도 올라왔는데요. 여기 계곡 건너편에 흘림체로 써서 알아보기 어려워 보이는 바위글씨가 있는데요. 문사동(問師洞)입니다.</p> <p>문(問)은 일반적으로 문안을 여쭙는다, 안부를 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예기(禮記)에서는 예의를 갖추어 맞이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문사동은 ‘스승에게 예를 갖추어 맞이하는 곳’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승을 맞아 초대한 곳이고 도봉동천중에서 스승을 모시고 가장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뜻이겠죠.</p>
<p>마무리</p>	<p>지금까지 계곡을 거슬러 오르면서 생태와 바위글씨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입니다. 지구의 모든 것은 순환하지요. 물의 순환, 대기의 순환, 탄소의 순환 등 자연은 스스로 알아서 순환하면서, 좀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의 자정능력에 의해 고쳐나가면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인간이 그 순환의 고리를 툭 툭 끊어 놓음으로 인해 참으로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인간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구의 환경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만들어진 환경 시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9시 29분이랍니다. 12시가 되면 인류의 멸망, 대재앙이 닥쳐온다고 보았을 때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도 이제 그 심각성을 피부로 직접 느꼈으면 합니다.</p> <p>아마 많은 사람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큰 피해를 인류에게 준다는 사실을 보거나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피해가 당장 나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기에 무신경, 무감각하게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p> <p>부시와 싸워 낙선한 앨 고어는 정치를 접고 환경운동가로 변신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보호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가 한 말 중에 “세상에는 듣기 싫은 진실이 있다. 진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면 자신이 변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이야말로 환경을 위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조그만 것부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p> <p>감사합니다.</p>